순종하고 따라 행하라

(예레미야11:1-6)

예레미야 11:1-6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기도 응답이 평생 지속되는, 전도 열매가 계속 되어 사도행전과 같은 전도자가 되는 비밀도 있습니다. 렘넌트 학업, 산업이 계속 성장하여 시대적인 증인이 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작품 인생을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답이고 사실이며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각자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결과는 항상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자는 무조건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자는 인생이 성경과 같은 작품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절대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방해한다하여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전되어 그 방해는 축복이 되고 길이 됩니다.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인생이 답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100%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역전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월을 지나 다른 역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이 안풀린다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경시하면 안되며 말씀을 예사로 받으면 안됩니다. 그럼 인생 진도 안나가고 정체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십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눈을 받을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언약이 되어 길이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할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응답은 군데군데 일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것은 여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을 표본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 미래를 성취하십니다. 예측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속에서 보이는 게 생기며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며 확신이 됩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십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기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이 오면 자동으로 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받은 답은 확실합니다. 이 답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는 초월적인 답입니다. 세상, 사람, 환경에 흔들리는 답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응답이 계속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쌓여 세상, 시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눈이 열리는 축복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을 것이나 속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요셉과 그 형들의 속은 천지차이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는 사단을 깨야 합니다. 깨면 인생은 성경처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1. 순종하고 따라 행하라

4절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답입니다.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반드시 문제에서 나오고 해방되게 됩니다. 지속되면 승리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이 답이면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원죄의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말씀은 사단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 말씀대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답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답이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운명이나 재앙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말씀이 들어온다면 내게 무슨 변화가 먼저 들어올까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데 눈이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육안과 상관없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영권이 유지되고 영적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치유되게 되며,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 중에도 끝났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으니 이미 말씀대로 끝났다는 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복음부터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눈이 열려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요셉의 꿈과 같은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서 인생답이 날 것이며 앞으로 살아가야할 방향이 보이고 저 멀리 내 앞에 우뚝 서있는 그림으로 보일 것입니다. 나는 거기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일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도 자동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 편집, 준비하게 되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며 전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그게 가장 행복이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최고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다들 모르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남미 끝까지'의 말씀이 모세가 가나안가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면 우리도 남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할 것이며 남미의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드리고 남미의 라합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자 또한 없습니다. 막더라도 역전하게 됩니다. 끝까지 막는다면 제거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두고 받은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없고 어디를 향해 가는 지 모른채 그저 살고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방황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은 아닐 것이나 우리는 한 칸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유가 없다면 전부 육신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는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만약 육신으로만 산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됩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이니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상급이 없다는 황당한 삶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세계복음화가 통하면 됩니다.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세계복음화를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은 귀하지만 여전히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너무나 귀하지만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한 칸 더 올라가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힘을 써서 따라가려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나는 안따라가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게 됩니다. 해결 뿐만 아니라 인생이 성경의 대표적 인물들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근원을 치유할까요? 말씀 들어온다면 근원 치유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예배화할까요? 말씀 들어오면 즉시로 예배화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시대를 치유했을까요? 말씀 들어온 이후부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으며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재앙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노예되기 20년 전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해도 믿는 자가 없고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2절에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셨으며 6절에서도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땜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니라'. 재앙이 오면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지라도 안듣는다 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않으리니 이유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나를 두고 다른 데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간단한 삶을 살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없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됩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훈련 때 듣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힘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안 따라가려해도 따라가지게 됩니다.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더 근본적인 답입니다. 이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한 마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입니다.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처럼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보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